

# 茶戶里遺蹟의 編年과 弁辰韓의 土器文化

김 현 희\*

## I. 머리말

## II. 연구사 검토

## III. 다호리유적 토기편년

1. 토기 검토
2. 단계 설정

## IV. 다호리에서 본 변진한의 토기문화

## V. 맺음말

## 참고 문헌

---

\* 국립경주박물관

## I. 머리말

우리 고대사회를 고고학적 시각으로 조망할 때 청동검이나 동경, 귀금속 장식품 등 소위 威勢品(prestige goods)을 소재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다. 위세품은 사회지배층 또는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때 유효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비해, 토기는 생산지가 다원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소비한 물품이란 점에서 위세품 연구에서 얻어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고 형태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기술 혁신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회변화의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본격적인 철기시대로 전환된 소위 ‘原三國時代’의 토기문화를 검토하고자 하며,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 연차적으로 발굴조사한 창원 다호리유적 출토품을 소재로 삼겠다. 언급하는 자료의 시간적인 범위는 서력으로 보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로 경주 조양동 5호묘 단계 직전에서 60호묘 단계 직후까지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이 시대는 삼국시대 전기로 볼 수 있지만 『三國志』 위서 동이전의 기록이나 고고자료로 보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시대이다. 이 무렵의 묘제는 앞 시기부터 일부 조영되었던 목관묘인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채용하여 유행하였고, 토기성형 시 주로 회전력을 이용하고 밀폐소성한 瓦質土器 문화가 전개되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기문화의 이로움을 체험한 시대였다.

그간 원삼국시대의 여러 고고학적 지표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와질토기를 둘러싼 연구는 여러 성과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 계통 및 기원, 변화와 발전의 양상, 도질토기의 발생 시점 등 여러 논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발굴조사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 결과 다종다양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으며 원삼국시대 토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다(이성주 2007).

## II. 연구사 검토

경주 조양동유적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와질토기와 원삼국시대에 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와질토기문화를 6단계로 편년하고 상한을 서력기원 전후로 하

한은 기원후 300년 정도로 파악하였다. 이 가운데 臺附長頸壺와 ‘주머니호’로 불리는 小甕을 지표로 하는 토기군을 기원후 150년경 이전으로, 유개대부호와 노형토기를 지표로 하는 토기군을 그 이후 단계로 설정하였다(최종규 1983).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성과에서 제시한 상대서열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보완되고 있다. 다만 절대연대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양하여 상한과 하한을 올리기도 한다.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원삼국시대는 앞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물질문화요소가 복합적으로 포함된 유구 및 유물복합체가 등장하였는데,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관념이 투영된 묘제에서도 새로운 요소가 많이 관찰된다. 이 시대에는 목관묘나 목곽묘가 군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기의 경우 목관묘가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sup>1)</sup>. 이 발표의 소재인 창원 다호리유적은 목관묘의 군집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1988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총 73기 중 68기의 목관묘(옹관묘 4기, 민묘 1기)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경주 조양동유적<sup>2)</sup>(1979년~83년 조사, 목관묘 27기), 대구 팔달동유적<sup>3)</sup>(1996년 조사, 토광묘를 포함한 목관묘 102기, 목관묘군의 영역구분), 밀양 교동유적<sup>4)</sup>(2001년 조사, 단독영역 목관묘 22기), 성주 백전-예산리유적<sup>5)</sup>(2002년 조사, 목관묘 42기), 경산 신대리유적<sup>6)</sup>(2006년~08년 조사, 목관묘 109기)에서도 확인된다.

진변한지역의 원삼국시대 전기의 특징 가운데 목관묘의 군집화와 腰坑의 설치, 그리고 동검 등 位階性 物品<sup>7)</sup>의 매납 등은 당시 목관묘단계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목관묘의 상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이미 목관묘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 통설과는 달리 낙랑군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그것이다(임효택 1993, 김수남 1998, 진수정 1999, 박승규 2000). 많은 연구자들은 원삼국시기에 유행한 형식의 목관

1) 목관묘의 군집화 현상은 목곽묘 단계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정한 공간에 장기간에 걸쳐 분묘군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이는 기원전 1세기대 묘제의 주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2) 國立慶州博物館, 2001, 『慶州 朝陽洞遺蹟Ⅱ-사진-』

\_\_\_\_\_, 2003, 『慶州 朝陽洞遺蹟Ⅱ-본문-』

3)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Ⅰ』

4)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密陽 校洞遺蹟』

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星州 柏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6)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慶山 新垓里遺蹟』發掘調査現場說明會資料 42

7) 일반적으로는 금속류가 위계성 물품에 해당되지만 원삼국시대에는 동경이나 동검 및 칠기까지 위계성 물품에 포함시켜 파악한다. 그러나 시간의 추이를 보여주는 다량의 토기들은 기술혁신, 생산 및 분배체계 등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원삼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나타나는 신식 와질토기 중에 금속제 용기를 모방한 토기의 위세품화를 제시한 견해도 있다(이성주 2007).

묘는 기원전 1세기 무렵 등장하였고 분묘군의 군집화현상으로 보면 ‘지배적 친족집단의 무덤’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에 낙랑군 설치와 관련짓는 연구가 새로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이성주 2000). 목관묘의 하한은 김해 양동리 162호묘가 축조된 시기를 전후하여 목관에서 목곽묘로 전환한 것으로 보면서 그 시점을 기원후 2세기 중·후엽경으로 파악한다(임효택 1993, 최중규 1983, 신경철 1992, 이성주 2005, 이창희 2006).

토기나 철기에 대한 연구는 편년 및 양식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유물의 연대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편년표를 작성할 때 형식화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 속에 개재된 시간을 찾아낸다(최성락 1983, 광종철 1988). 기왕의 연구에서도 유구와 유물이 지닌 속성을 분석하고 속성의 조합관계가 어떠한 계기를 지니는지에 착목하여 편년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발표에서 다룬 다호리 목관묘는 위계화된 군집형 목관묘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기왕의 연구는 묘제의 변화, 와질토기와 공반유물의 편년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다호리유적 와질토기의 편년을 제시한 연구성과(안재호 2000)를 보면 속성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통해 형식을 설정하고 속성의 공존에 근거하여 토기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속성의 조합으로 생겨난 型式 사이의 순서가 바로 ‘段階’와 동일시되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방법론이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이창희 2006)<sup>8)</sup>. 기원후 1~4세기 진변한지역 목관묘와 목곽묘단계의 토기속성을 분석하여 단계적인 변화를 찾아본 연구(이성주 1999)에서는 목관묘시기(제Ⅰ기)와 목곽묘시기(제Ⅱ기)를 나누고, 목관묘단계를 7단계로 세분하였다. 목관묘시기의 상한을 기원전 1세기 전반, 하한을 기원후 2세기 중엽으로 파악하였다.

기원전 3세기초에서 기원후 1세기까지 낙동강유역권을 설정하고 세형동검문화의 전개 과정을 고찰한 견해(정인성 1997)는 세형동검문화를 크게 4단계로 나누었고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존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반도 점토대토기의 계보를 중국 요하중류역에서 찾으면서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존한 팔달동유적의 토기를 편년한 성과(박진일 2001)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의 소멸시기를 기원전 1세기대로 보고 이들 무문토기가 와질토기로 변모해가는 계기는 서북한지방과의 접촉을 통한 新製陶技術의 도입으로 보았다.

8) 필자도 치밀한 속성의 분석과 형식의 추출에 많은 시간이 투여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분석치가 도표와 도면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근에는 목관묘에 부장된 토기를 형식학적으로 검토하여 ‘부장용 무문토기의 소멸과 새로이 등장한 와질토기의 부장품화’ 문제를 다룬 연구(이창희 2006)가 제출되었다. 이에 의하면 와질토기는 도입기·발전기·정형화기와 같이 3기로 나누어지며 와질토기의 부장용화로 인해 무문토기의 부장이 불필요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서부경남지역에서 기원후 2세기 중엽 또는 말엽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았다.

### Ⅲ. 다호리유적 토기편년

#### 1. 토기 검토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파수장경호와 주머니호, 단경호,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목관묘 단계의 와질토기를 편년한 여러 연구 성과가 있다<sup>9)</sup>. 기본적으로 口頸部, 胴最大徑의 위치, 저부의 형태, 整面技法 등의 제 속성을 기준으로 형식학적 분류가 이루어졌다<표 1 참조>.

다호리유적에서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함께 출토된 유구<sup>10)</sup>는 5호·6호·7호·12호·13호·17호·25호·31호·34호·36호~40호·42호~44호·47호·48호·52호·54호·57호·58호·62호~66호·69호로 총 29기에 달한다. 무문토기의 기종은 고배, 호형토기, 점토대토기, 발형토기, 뚜껑, 단경호이고 와질토기의 기종은 주머니호, 파수부장경호, 단경호, 완(보시기) 등이 주를 이룬다. 다호리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 중 특히 주머니호의 경우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sup>11)</sup>가 있다. 소성이나 색조, 태토의 정제

- 9) 林孝澤, 1993, 『洛東江 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 研究』,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24, 嶺南考古學會  
安在晧,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李昌熙, 2006, 『木棺墓 副葬土器의 形式學的 檢討』, 『石軒 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10) 이재현(2003)은 영남지역의 목관묘를 3시기로 구분하고, 무문토기만 부장→와질토기 우세, 삼각형점토대토기 부분 공존→삼각형점토대토기 소멸, 와질토기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 11) 안재호(2000)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구분에 있어 소성방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산화염 소성을 무문토기, 환원염 소성을 와질토기로 구분하고 토기의 내외면과 속심이 회·흑색계 색조를 띠면서 태토에 사립이 적고 비교적 정제된 토기를 와질토기로 분류하였다. 필자는 이 발표의 원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구분이 모호한 토기를 중심으로 토기를 관찰해 본 결과, 위 속성으로도 양자를 구분해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환원염 소성일지라도 저온 소성일 경우 부분적으로 산화현상이 발생하여 적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도 등의 구분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토기 관찰자의 안목과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중 28호, 34호와 43호에서 출토된 주머니호의 경우 무문토기인지 와질토기인지 그 구분이 애매하다. 무문토기에 회전물손질 등의 와질토기의 새로운 제작기술(성형방법)이 도입되면서 대각의 굽과 삼각형 구연이 사라지는데 이러한 토기 제작기술의 발전양상에 따라 회전물손질, 마연이나 깎기, 타날흔 등에 의해 무문과 와질을 구분하기도 한다.

다호리 목관묘 출토 토기의 형식분류에 있어 시간적 추이를 보여주는 제 속성 중 구연부의 형태(내만, 외반, 구순 형태), 동체부의 형태(동최대경의 위치), 저부 형태(평저, 원저, 꼭지)가 주요한 속성이다. 이러한 속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하게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구연부 : 직립에서 외반, 구순끝 처리의 변화
- 동체부 : 구형에서 편구, 장동화, 또는 동최대경 하위에서 중·상위로의 상승
- 저부 : 굽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원저화→첨저화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주머니호, 파수부장경호, 단경호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도면 1 참조>.

주머니호는 앞 시기 무문토기(점토대토기)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파수부장경호와 더불어 목관묘단계의 와질토기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속성분류에 있어 시간적 추이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초기형과 말기형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구연부의 내만/외반정도, 동최대경의 위치와 동최대경에서 구연부에 이르는 곡률<sup>12)</sup>, 저부 굽의 유무와 형태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호리유적에서 보이는 주머니호는 점토대구연과 굽이 있는 것에서 굽이 쇠퇴하고 완만한 평저를 보이는 1단계에서 출발하고, 동최대경에서 구연부까지 거의 직선적인 것, 동최대경과 구연부까지가 내만한 것에서 점점 내만 각도가 커지고 저부가 원저화된다. 6단계에 이르면 동최대경의 뾰족한 각이 생기고 구연부가 완전히 수평으로 꺾인 첨저화된 저부로 변한다.

12) 이성주의 주머니호 분류에 따르면 주머니호는 구경부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대별되며 그 안에서 각각 다시 세분되어진다. 즉 주머니호의 전기형은 동최대경의 상승화에 의해, 후기형은 구경부의 曲律(내만도) 정도에 의해 분류되었다.

표 1. 목관묘 토기 형식분류 속성 비교

연구자	유물명	속 성				
		구경부(외반정도)	동 체 부	저 부	문 양 (정면기법)	기 타
정인성 (1997)	점토대토기	원형/삼각 삼각점토대의 상면형태(곡선화)				
	흑도장경호	구연과 동체고 비교, 구순의 외반/직립	동최대경 위치 (하위/중위)		굽의 높이	흑도장경호-파수부장경호- 타날파수부장경호- 대부장경호-직구호로 연결
	주머니호	구연 형태 (소형점토대/외반구연/단순처리)	동체부 형태 (곡선내반/직선과 각/각, 내반)			
	파수부장경호	구연형태(직립, 외반/곡선, 외반/ 곡선, 외반, 구순돌 두툼)	동최대경 위치 (하위/중위)	좁은굽/ 흔적굽/원저		흑도장경호 변화기종
	타날파수부 장경호	곡선외반/곡선외반, 구순끝두툼/ 구순수평외반	동최대경 위치 (중위/상위)			
이성주 (1999)	장경호	직선과 곡선	최대폭 위치, 장동화 경향		타날문의 유무와 종류	
	주머니호	목부분의 유무로 2가지로 구분,	동최대경 위치 상승			발형-장경화 무문토기에서 출발
	옹형토기	구연 외반		원저화		무문토기(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 원저용으로 변화
안재호 (2000)	장경호	직선/나발	동체부 형태 (구형/난형)	대상굽/말각/ 원저	무문/타날, 횡침선유무	
	소형옹 (주머니호)	구연 형태 (점토대/단순구연)	동체부 형태 (부푼 것/편평/내만/완전내만)	대상굽/말각/ 원저		
	와질 완	구경과 높이 관계	동체상반부 형태 (내경/직립/외경)	평저/원저		신기종
	와질단경호	구경의 외반정도 (직립/직립, 구순외반/외경, 구순의 직각화/나팔상)		평저/원저	횡침선평행도, 간격, 수(무/ 2선)조(연속다선)	신기종(낙랑, 고조선)
	무문토기호 (와질토기, 양이부호)		동체의 장대화 동체 무변화	대상저부/ 꼭지/말각 평저/원저		동체의 장대화와 무변화 두계통으로 나뉨
	무문토기 옹	점토대/점토대극소형/홀구연		대상저부/ 원판상저부/ 말각평저/ 원저		와질토기화
이창희 (2006)	장경호	동최대경과 저부와의 각도 (90도/75-89도/74도) 동최대경과 구경관계 (>, =, <)	구형/편구/장동		마연/(회전) 물손질/타날	
	주머니호	내만/직선/만곡		굽/평저/원저		
	단경호	직선/구순만 외반/경부 자체 외반		(말각)평저/ 원저	횡침선 10개 미만/이상	
	옹	점토대 유무와 형태, 홀구연 (홀구연화)		굽/(말각)평저/ 원저		
	파수부호	경부외반각도 (120도 미만/이상)		굽/(말각)평저/ 원저		파수형태(봉상/뉴상/소형화) 파수위치(동체중위/상위)

파수부장경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경우 주머니호와 마찬가지로 초기형과 말기형의 형태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분류기준은 주머니호와 거의 동일하다. 다호리유적에서는 이른 시기의 주머니호 단계의 파수부장경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머니호는 굽이 아닌 평저단계에서 파수부장경호가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구연은 직선으로 벌어지고 목부분이 넓은 편이다. 동최대경이 하위에서 상위로 상승하고 저부의 형태<sup>13)</sup>도 굽이 있는 것에서 원저로 변화한다. 동최대경이 상위로 가면서 동체부 자체가 소형화(첨저화)되고 대신 구연부가 나팔처럼 벌어지다가 구연 끝이 수평으로 꺾이게 된다. 주머니호와 파수부장경호의 분류 속성 중 차이점은 橫沈線과 繩紋打捺 여부이다. 把手의 경우 형태나 부착위치 등이 시간적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장식화(과장)된다.

단경호는 목관묘 단계에서 새로이 등장한 기종으로 외래 문화의 유입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단경호의 분류 속성으로 구경부의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횡침선 등을 들 수 있지만 주머니호와 파수부장경호처럼 시간적 추이가 뚜렷하지 않다. 구경부의 외반정도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구연의 끝부분만 꺾이는 것으로 변한다. 동최대경의 위치는 주머니호와 파수부장경호처럼 하위에서 상위로 옮겨간다. 또한 동체부 횡침선의 평행도와 간격, 숫자에 따라 회전판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부는 평저에서 원저로 변화한다.

## 2. 단계 설정

위와 같이 속성을 분류하여 다호리유적 목관묘 출토 토기를 편년하면 <표 2>와 같다. 기본적으로 주머니호, 파수부장경호, 단경호가 공반되는 유구를 편년의 중심으로 삼았다<sup>14)</sup>. 상대연대 결정 시 속성변화의 방향은 경주 조양동유적의 5호묘, 38호묘, 60호묘와 대비하였다.

I 단계는 다호리 41호묘 출토 무문토기인 삼각점토대토기와 34호묘 출토 토기를 기준

13) 권지영(2006)은 경주지역의 와질토기 편년안을 검토하면서 파수부장경호의 경우 저부는 대각 굽 → 원저 → 첨저 → 대각의 부착 순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14) 김수남(1999)은 임당유적 목관묘 출토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를 중심으로 분기를 설정하였다. 토기의 조합상을 3가지의 유형, 즉 무문토기만 출토되는 목관묘를 A형,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반되는 목관묘를 B형, 와질토기만 출토되는 목관묘를 C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호리유적의 경우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공반양상을 검토한 뒤 단계별로 설정된 유구를 살펴본 바, 연속적인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다호리 목관묘가 도굴로 인해 파괴가 심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으로 삼았다. 다호리 34호묘의 주머니호는 발굴진전보고서에는 와질토기로 분류한 바 있으나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무문토기로 마연과 깎기흔이 관찰된다. 조양동 5호묘 주머니호 역시 점토대구연을 가진 무문토기이며, 외면을 마연한 후 물손질한 것이다. 조양동 5호묘와 다호리 1호묘가 다호리 1단계 직후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Ⅱ단계는 다호리 35호의 주머니호와 단경호가 해당된다. 주머니호의 경우 저부가 굽모양을 이룬 것과 평저 기미를 일부 보이는 원저형이 공존한다. 조양동 5호묘 단계의 주머니호보다는 새로운 요소로 보이며 모두 와질토기로 바뀌었다. 단경호의 경우 동최대경이 하위에 있고 승문을 타날한 후 침선을 두 바퀴 돌렸다. 이 단계의 와질토기는 회전물손질로 整形하였으며 승문 타날의 원저단경호가 등장한다.

Ⅲ단계는 다호리 63호묘가 해당한다. 파수부장경호는 구연부가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동최대경이 중위에 있으며 평저상의 저부가 흔적처럼 남아 있다. 주머니호는 평저이며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직선적으로 연결된다. 이 단계의 토기 가운데는 무문토기질의 고배<sup>15)</sup>가 남아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조양동 38호묘가 속할 것으로 보인다.

Ⅳ단계에는 다호리 49호묘가 해당된다. 다호리 49호묘에서는 파수부장경호가 3점이 확인되는데 1점은 목곽 상부에 부장되었고 1점은 남장벽에, 나머지 1점은 동단벽 모서리바닥에서 확인되었다. 그중 목곽 상부와 남장벽에서 출토된 파수부장경호의 경우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팔상처럼 벌어진 구연부를 지니고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며 저부는 원저이다. 그러나 동단벽 모서리에서 출토된 파수부장경호의 경우 구연부의 벌어진 정도가 직선적이고 목부분의 직경도 좁은 편이다. 또한 동체부의 형태가 앞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동최대경이 상위로 옮겨지고 동체부의 형태도 구형에서 縱扁球形으로 바뀌며, 4~5줄의 횡침선이 시문되어 있다. 따라서 49호묘의 경우는 파수부장경호의 변화에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주머니는 동최대경 부분이 각이 세워지면서 구연부까지의 내만도가 커지는 단계에 속한다. 49호묘의 주머니호는 대각이 부착되어 있지만 대각의 유무가 시간의 변화를 잘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고 후기로 가면서 여러 기종에 다양하게 활용되므로 큰 변화의 흐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단경호의 경우 동최대경이 중위에 가까이 위치하며 구경부는 짧게 외반한다. 동체부에서 경

15) 다호리유적에서 보이는 무문토기 고배로는 57호묘와 63호묘의 출토품이 있다. 무문토기 고배의 선후 관계에 있어 57호묘를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먼저 보는 견해(이성주 2005)와 63호묘를 먼저 보는 견해(안재호 2000, 이창희 2006)로 나누어진다.

부까지는 승문이 횡으로 정연하게 타날되었고 횡침선은 7줄 시문되었다. 동체부에서 저부까지는 무질서하게 승문이 타날되었다.

V단계는 파수부장경호, 주머니호, 단경호, 꼭지상 兩耳附壺의 조합을 나타내는 다호리 31호묘가 해당된다. 이 단계에는 파수부장경호의 구연 끝부분이 수평으로 꺾이기 시작하고 동최대경이 상위로 옮겨간다. 동체의 바닥까지 승문이 타날되고 횡침선이 돌렸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동체가 소형화되어가고 바닥이 점점 첩저화된다. 주머니호는 원저의 바닥에 동체부에서 구연까지의 내만도가 커지고 구연 끝부분이 수평으로 벌어지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단경호는 구경부가 외반하다가 구경 끝부분이 밖으로 꺾이면서 마무리된다. 동최대경은 중상위로 올라가며, 바닥까지 승문이 타날되었다. 조양동 60호묘는 이 단계 직후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VI단계는 다호리 64호묘이며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파수부장경호의 동최대경이 어깨부분으로 올라가고 바닥은 첩저이다. 구경부는 심하게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구연의 끝부분이 수평으로 꺾인다. 주머니호 역시 바닥이 첩저이고 동최대경이 위치한 부분에 각이 져 있다. 구연까지의 내만도와 구연 끝부분 처리는 파수부장경호와 동일하다. 단경호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하며 구연이 내만도를 가지면서 밖으로 벌어지고 끝부분이 한단의 턱을 가진 형태가 된다. 동체 전면이 타날되어 있으나 동체부와 저부의 타날 방향은 다르다.

이처럼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속성을 검토하여 6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단계는 조양동 5호묘보다 한 단계정도 빠른 단계로 본다면 기원전 1세기 전엽에 상응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 6단계는 기원후 2세기 전엽 경에 두고자 한다. 기원후 2세기 중·후엽은 영남지역 와질토기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시점으로 고식 와질토기에서 신식 와질토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김해 양동리 162호 후한경과 방제경을 통해 결정된 연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임효택 1993, 최종규 1983, 신경철 1992, 이성주 2005, 이창희 2006).

1단계에서 6단계를 크게 대별하자면 3단계와 4단계 사이가 된다. 즉 파수부장경호와 주머니호의 굽에 변화가 생긴 것이고, 주머니호의 경우 동최대경에 각이 생기고 구연부까지의 내만도가 커진다. 이후 단계부터는 동체부가 작아지고 구연 끝부분이 수평으로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분기점의 편년은 기원후 1세기 전·중엽에 두고자 한다.

#### IV. 다호리에서 본 변진한의 토기문화

와질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의 토기문화는 삼각형 구연을 가진 점토대토기문화였으며 와질토기가 제작·사용되는 시기에도 일정기간 공존한다. 여기서는 먼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하한과 소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요하 중류역에서 발생한 점토대토기 문화가 한반도에 유입하여 한강유역과 금강유역, 낙동강유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특히 낙동강유역에서는 해안과 내륙으로 나뉘어 이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해안양식의 경우는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발생하고 내륙은 기원전 2세기 후엽,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는 기원전 1세기대에 이르러 쇠퇴하고 일부는 와질토기로 변모한다(박진일 2001).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삼천포 늪도유적을 標識로 하는 생활유적에서 기원후 2세기대까지 존속한다고 보기도 하며(이재현 2003) 부장용으로 서의 무문토기는 기원후 100년 전후에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창희 2006). 후자의 경우 사라리 130호분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기형만 무문토기의 형태를 따르고 있고 소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재현의 목관묘 Ⅲ단계인 기원후 2세기대까지 존속한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원후 1세기대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영남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 편년을 설정할 때 이른 단계의 편년 설정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조양동 5호묘이다. 조양동 5호묘 파수부장경호는 동최대경이 하위에 있으며, 파수가 수평으로 부착되어 있다. 구연부는 밖으로 약간 벌어지듯이 올라가고 구경이 동최대경에 비해 꽤 작은 편이다. 저부는 굽모양이다. 주머니호 역시 굽모양 저부를 가지고 있으며, 동최대경이 하위에 있다. 이 단계까지 점토대토기단계를 대표하는 흑도장경호처럼 黑色磨研의 전통이 남아 있다.

두 번째로 목관묘 단계의 와질토기의 편년설정에 기준이 되는 조양동 38호묘의 연대를 西漢鏡을 근거로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보거나(최종규 1983·2008, 이재현 2000, 이성주 2005, 이창희 2006) 기원전 1세기 후반 또는 후엽으로 보는 견해(高久建二 2000, 이희준 2002)로 양분된다. 한경의 경우 기존에는 전세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자의 연대를 동의하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 진변한 사회 내에서 한경이 전세되지 않았다고 보는 인식<sup>16)</sup>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 다호리유적에서는 대부분의 토기 기종이 와질화된다.

점토대토기단계에는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차가 존재한다(박진일 2001). 목관묘 단계의 토기군에서는 계층화·위계화 등은 확인되지만 지역차는 거의 없다(이성주 2005, 권지영 2006). 경산 임당유적 출토 목관묘의 토기가 창원 다호리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견해(김수남 1999) 역시 목관묘 단계의 토기 지역성의 부재를 말해준다. 즉, 부분적인 지역성은 인정하지만 동일문화권<sup>17)</sup>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목곽묘단계에 이르면 다양한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다(이재현 2001, 윤운식 2002, 이성주 2003). 최근 연구성과를 보면 영남지역의 분포양상을 낙동강하류·밀양강유역권, 형산강·태화강유역권, 낙동강중류·금호강유역권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눈 다음 목관묘 축조집단과 전개양상, 위세품을 통해 각 지역집단의 사회발전 정도를 파악하였다(조수현 2005). 이 논고에서는 창원 다호리유적을 원삼국시대 전기에 사회발전 정도가 높았으나, 후기에 가서는 오히려 쇠퇴한 것으로 보았다. 즉, 창원 다호리유적 인근에서 확인된 덕천리 지석묘의 존재를 통해 이 지역 일대가 청동기시대 최전성기의 문화를 이루었고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높은 사회발전을 이어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 지역이나 주변 지역 내에서 목관묘에 후행하는 목곽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김해나 경주 등지에서 전기·후기에 연계되는 양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 V. 맺음말

영남지방에서 목관묘는 세형동검문화기인 기원전 3세기대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지만 일정한 지역 내에 목관묘만을 조성하는 군집화(집단화) 현상은 기원전 2세기 후엽 무렵부터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지역 내 사회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고 무덤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일정 지역 내에 형성된 목관묘 출토품을 분석해 보면 위세품의 소유에 따라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특히 한경과 방제경은 편년을 설정

16) 본고에서는 조양동의 38호묘의 경우 한경의 사용기간이나 전세기간의 설정을 너무 오래두지 않는 의견(이재현 2000)에 동의하며 기원전 1세기 중엽경으로 보고자 한다.

17) 최종규(2008)는 한국고고학에 있어 고고학문화라는 개념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유럽에서 고고학 문화 개념을 실천한 고든 차일드와 중국고고학의 고고학문화 실천과정에서 제시된 견해를 소개한 후 한국 기원후 1~3세기대에 적용시켜 한반도 일정지역, 동일시기에 병존하는 6가지 고고학 문화 개체(조양동문화, 소명문화, 중도문화, 호곡문화, 낙랑문화, 노남리문화)를 설정하였다.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비교자료가 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창원 다호리 출토 토기의 단계를 설정하고 편년설정에 기본 축이 되는 경주 조양동 5호·38호·60호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의 무문토기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머니호와 파수부장경호, 새로운 기종인 단경호의 조합상을 분석한 바, 총 6 단계를 설정하였다<sup>18)</sup>. 조양동유적 등 주변 유적 출토 자료와 비교해보았을 때 다호리의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 전반<sup>19)</sup>에서 기원후 2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기원후 1세기 전엽경 동체가 소형화(첨저화)되고, 구연부가 과장되며 타날과 회전물손질이 유행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기왕의 여러 연구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론적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토기에서 보이는 제 속성 중 필요하다고, 또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속성을 선택하여 편년하는 작업을 답습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무문과 와질을 구분하는데 있어 제아무리 태토와 색조, 정면기법, 소성 등의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연구자의 관찰력 차이, 즉 주관의 개입되기 때문에 보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토기의 속성에 있어 유효한, 또는 필요에 의한 선택, 각 유적별로 선택하는 토기가 다름에 따라 동일한 속성기준을 적용했음에 불구하고 토기를 한 줄로 세워놓고 보면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즉 필요에 의한, 유효한 속성의 선택은 발표자가 보기에만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한 지역의 토기를 이해할 때 다른 계통의 토기까지 포함한 전체의 토기상을 파악해야한다는 주장(武末純一 2008)처럼 복수의 양식, 복수의 문화나 집단이 한 지역에 동시 존재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 이러한 토기의 대비는 앞서 언급했듯이 목관묘단계에서는 토기의 지역차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선학의 연구(안재호 2000)처럼 창원 다호리유적의 속성분류안이 경주지역의 와질토기에도 적용된다.

19) 안재호(2000)의 토기 편년에 의하면 1기는 기원전 1세기 후반, 4기는 기원후 2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본고와의 차이는 조양동 5호의 편년을 기원전 1세기 전반에 둘 것인지, 조양동 38호를 기원후 1세기 전반에 둘 것인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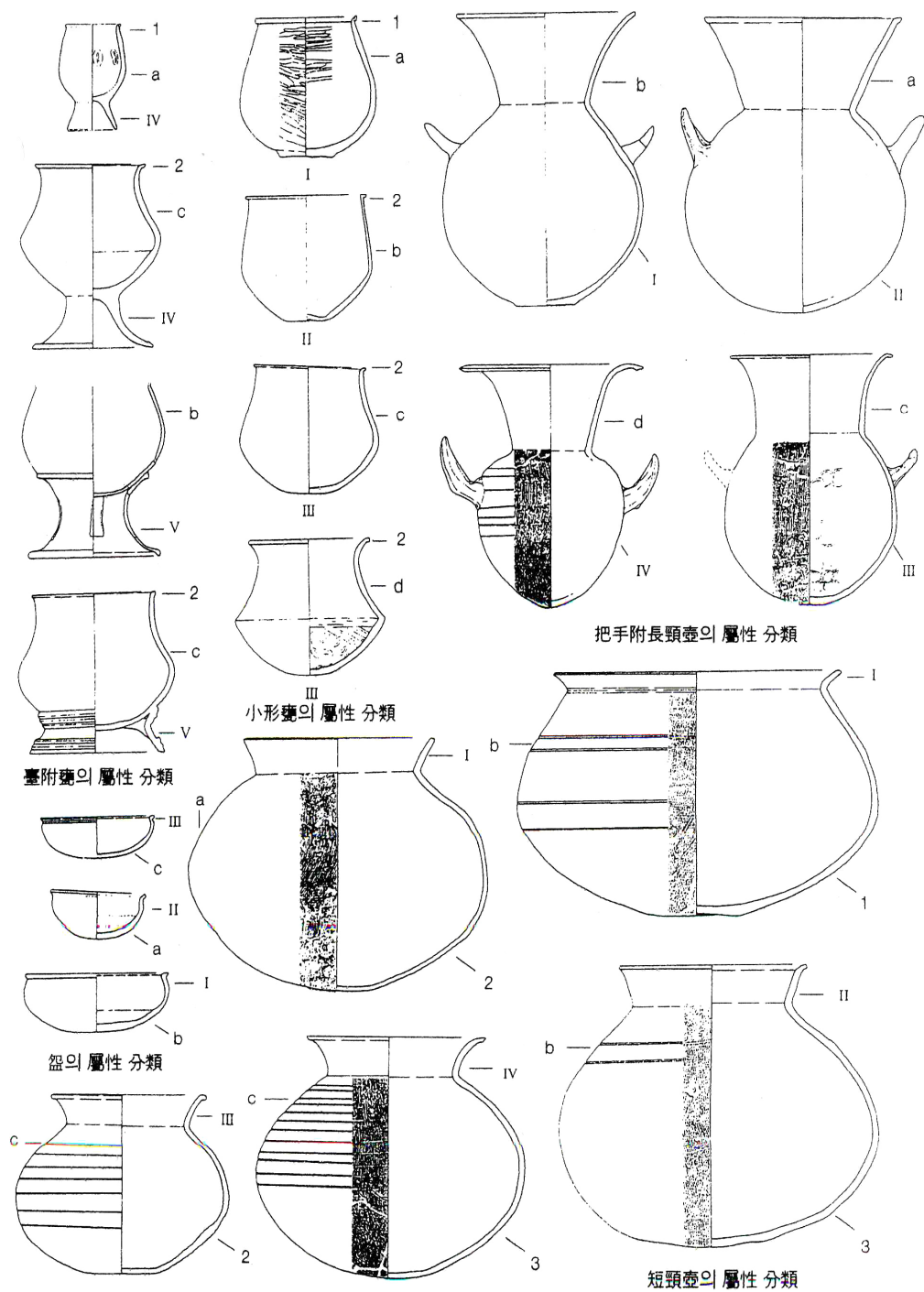
- 郭鍾喆, 1988, 「編年標作成을 위한 方法적 사례의 정리」 『古代研究』 1, 한국고대학회
- 高久健二, 2000, 「樂浪郡と弁・辰韓の墓制」 『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 權志瑛, 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 『石軒 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金洙南, 1999, 『林堂遺蹟 原三國時代 木棺墓』 第21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會
- 김원룡, 1973,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 , 1983, 「소위 와질토기에 대하여」 『歷史學報』 99·100
- 金榮珉, 1996, 『南地域 三韓 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 2006, 「辰韓地域의 木棺·木槨墓 出土遺物의 검토」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발표요지
- 金龍星, 1996,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 金 賢, 2000, 「咸安 道項里 木棺墓 出土 瓦質土器에 대하여」 『道項里·末山里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 武末純一, 2008, 「小林行雄 型式論에 대한 覺書」 『考古學探究』 4호
- 朴升圭, 1997, 「慶州 舍羅里 130호분에 대하여」 『新羅文化』 제14집, 東國大學校新羅文化研究所
- 朴辰一, 200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文化 試論」 『韓國上古史學報』 35
- 申敬澈, 1982, 「釜山·慶南 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 , 1989,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 『釜山市史』 권1
- , 1995, 「와질토기문화론」 『한국고고학의 반세기』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安在皓,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古代史와 考古學-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學研文化社
- , 2000, 「弁·辰韓의木棺墓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 尹溫植, 2002, 「영남지방 원삼국시대 土器 「樣式」論의 제기」 『嶺南考古學』 31, 嶺南考古學會

-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 『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 『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II」, 『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 IV」, 『考古學誌』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24, 嶺南考古學會
- , 2000, 「紀元前 1世紀代의 辰·弁韓地域」, 『전환기의 고고학III-역사시대의 여명』 제2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요지
- , 2004, 「技術, 埋葬儀禮 그리고 土器樣式」, 『韓國古考學報』 52, 한국고고학회
- , 2005,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 , 2007, 「原三國時代 土器에 대한 理論的 論議의 方向」, 『先史와 古代』 26집, 한국전사고대학회
- 李盛周·金炫希, 2000, 「蔚山 茶雲洞 中山里遺蹟 木棺墓와 木槨墓」, 『三韓의 마을과 무덤』 第9回 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 이양수, 2008,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 『제21회 영남문화재연구원발표요지』, 영남문화재연구원
- 李在賢, 2000,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嶺南考古學報』
- ,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 2003, 「영남지역 三角形粘土帶土器의 성격」, 『新羅文化』 제23집
- , 2006, 「慶州地域 木棺·木槨墓와 斯盧國」,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학술발표대회
- 李昌熙, 2006, 「木棺墓 副葬土器의 形式學的 檢討」, 『石軒 鄭澄元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研究會
- 李清圭, 2000, 「국의 형성과 다뉴경 부장묘」, 『선사와 고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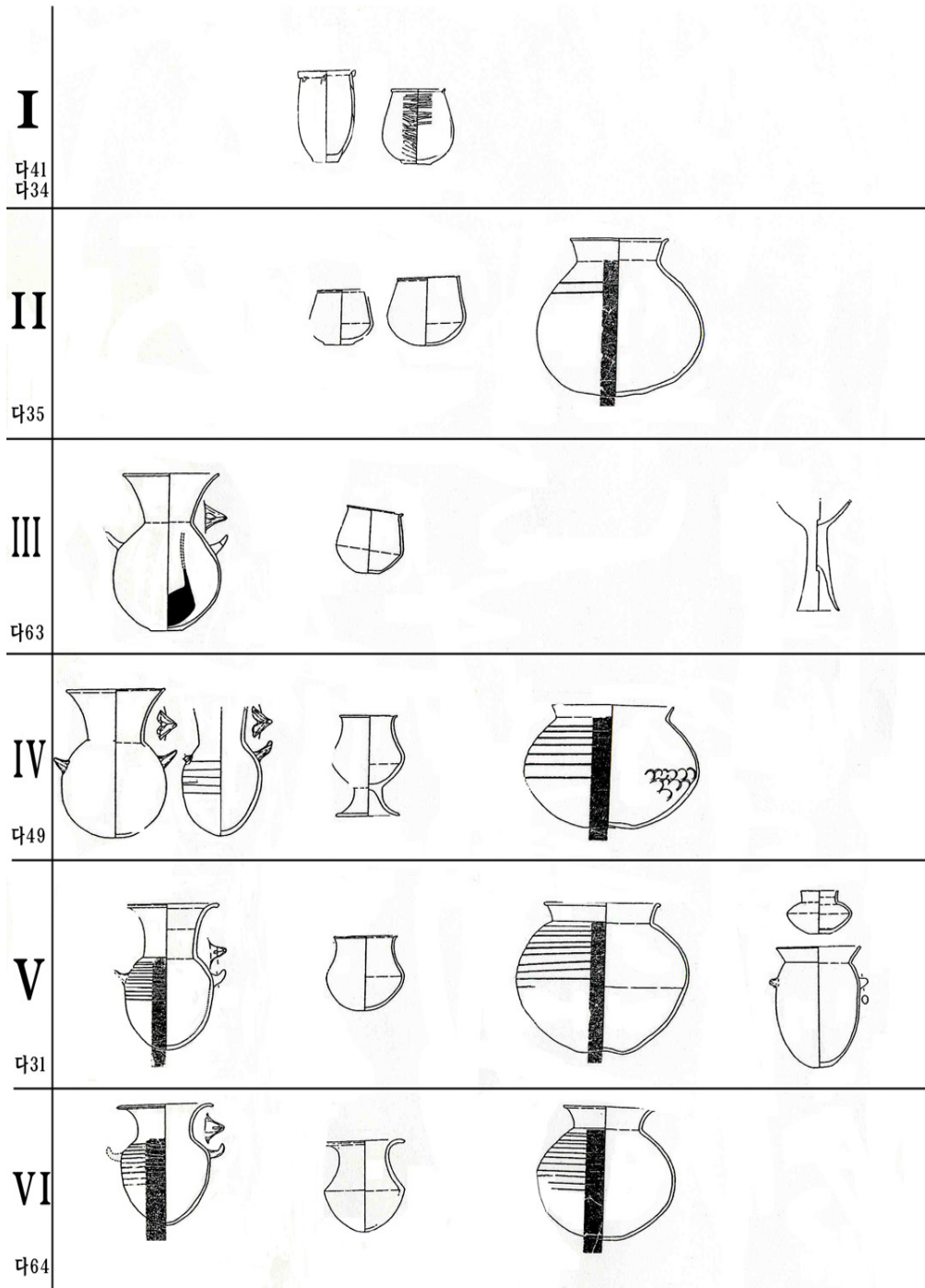
- 李熙濬, 2002, 「초기 辰·弁韓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辰·弁韓史研究』, 경상북도·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 임동재·조상훈, 2006, 「김해지역 양동리·대성동 목관묘 비교검토」 『伽倻文化』 통권 제19호, 가야문화연구소
- 임동재, 2007, 「삼한시대의 경주 황성동유적」 『동아연구』 2·3합집,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林孝澤, 1993, 『洛東江 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 研究』,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全成南, 2007, 『金海 大成洞 木棺墓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 민, 2008, 『영남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특징-경산 신대리유적을 중심으로-』 제21회 영남문화재연구원발표요지
- 井上主税, 2005, 「嶺南地域 출토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韓國上古史學報』 48
- 鄭仁盛, 1997, 『낙동강 유역권 細形銅劍 文化의 전개』, 경북대학교문헌석사학위논문
- , 2006, 「낙랑 ‘타날문단경호’연구」 『강원고고학보』 제9회, 강원고고학회
- 조상훈·김용탁, 2007, 「영남지방 목관묘집단의 출현과 전개양상에 대한 일고찰」 『동아문화』 2·3합집,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曹秀鉉, 2005, 「弁·辰韓地域 木棺墓에 대한 一考察」 『科技考古研究』 第11號, 아주대학교박물관
- 陳成燮, 2002, 「大邱 八達洞遺蹟」 『세형동검문화의 제문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5회합동고고학대회
- 진수정, 2000, 「Ⅲ. 考察」 『八達洞』, 嶺南文化財研究院
- 崔盛洛, 1983, 「韓國考古學에 있어서 形式學的 方法의 檢討」 『한국고고학보』 14·15
- 崔鍾圭, 1983, 「瓦質土器의 檢討と意義」 『古代を考える』 34-古代伽倻の檢討-
- , 1991, 「무덤에서 본 삼한사회의 구조 및 특징」 『한국고대사논총』 2
- , 2008, 「考古學文化의 實踐」 『考古學探究』 4號
- 河眞鎬, 2006, 「慶州 舍羅里 130號墓에 대한 考察」 『사로국시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道項里·末山里遺蹟』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星州 柏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 調査報告書』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龜旨路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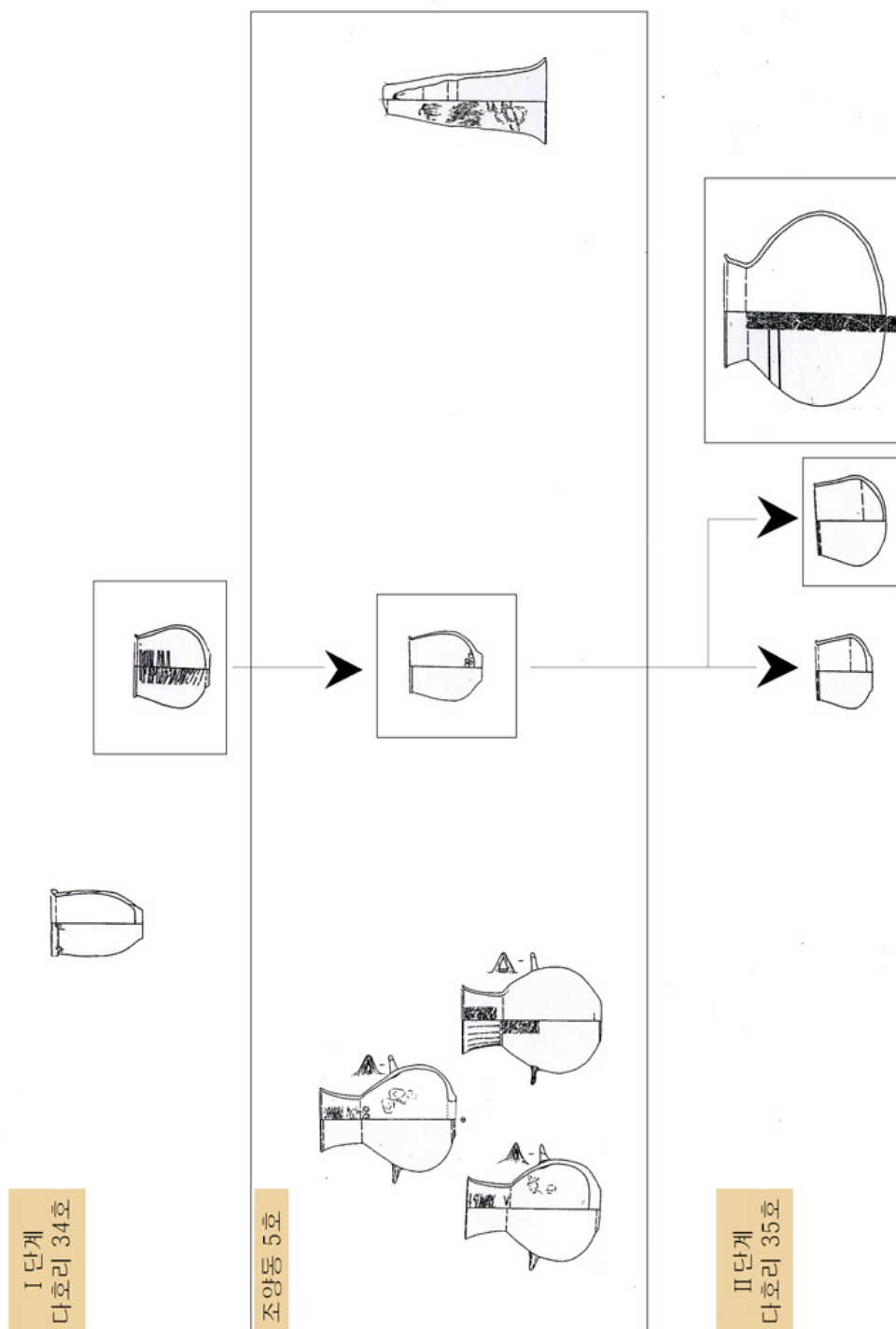
- \_\_\_\_\_, 2000, 『金海 大成洞古墳群 I』
- \_\_\_\_\_, 2000, 『金海 大成洞古墳群 II』
- 國立慶州博物館, 2001, 『慶州 朝陽洞遺蹟 II-사진-』
- \_\_\_\_\_, 2003, 『慶州 朝陽洞遺蹟 II-본문-』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 『咸安 道項里古墳群 I』
- \_\_\_\_\_, 1999, 『咸安 道項里古墳群 II』
-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 良洞里古墳文化』
- 문화재연구소, 1989, 『김해양동리고분』
- 密陽大學校博物館, 2004, 『密陽 校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 \_\_\_\_\_, 2001, 『慶州 舍羅里遺蹟 II-木棺墓・木槨墓』
- \_\_\_\_\_, 2007, 『경산 신대-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내 慶山 新垓里遺蹟』 發掘調査現場說明會資料 42
- \_\_\_\_\_, 2006, 『경부고속철도 경주 덕천리 건설구간내 경주 덕천리유적 발굴조사 II』 영남문화재연구원 현장설명회자료 38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3, 『慶州 隍城洞遺蹟 I-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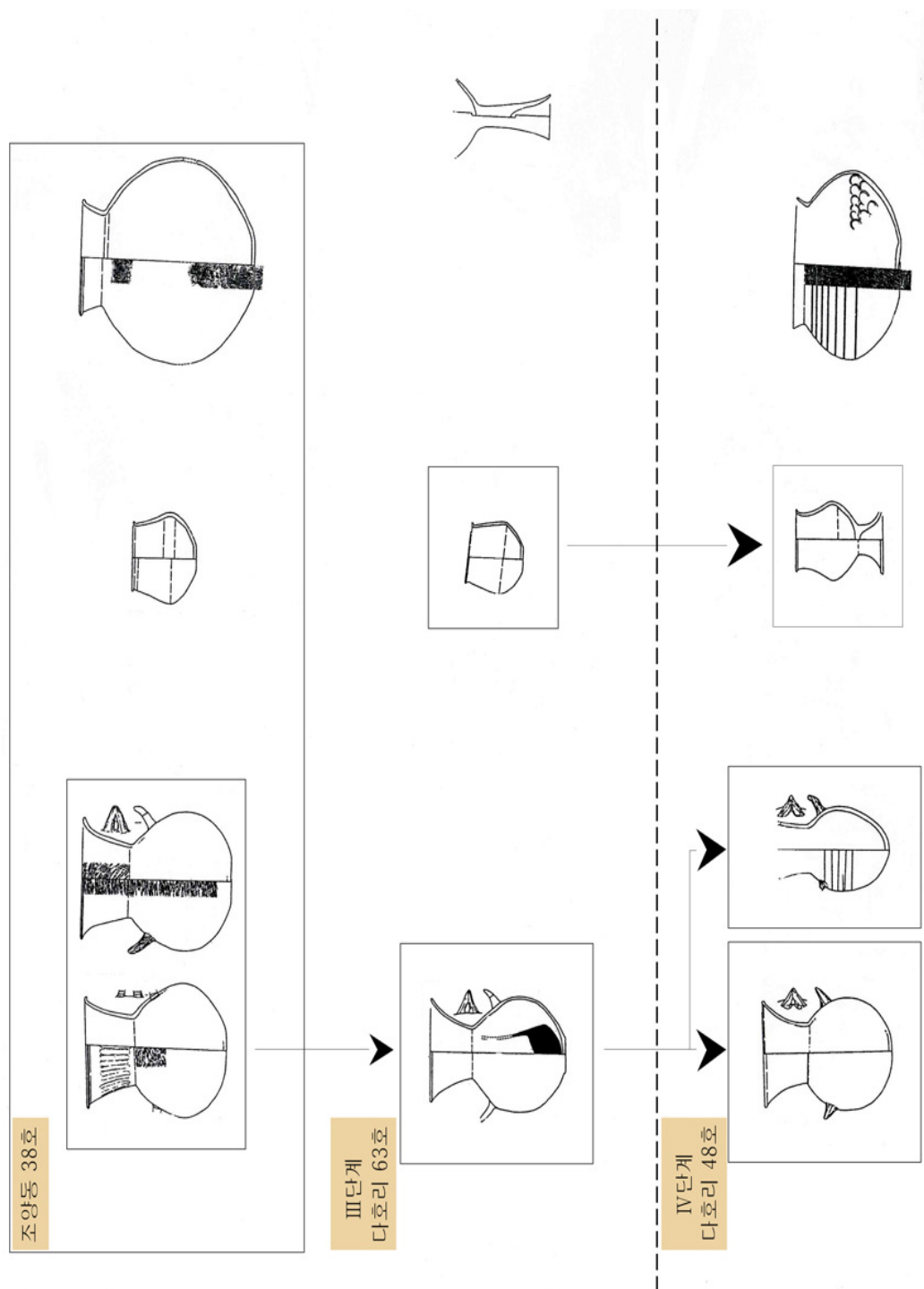
도면 1. 와질토기 속성 분류(안재호 200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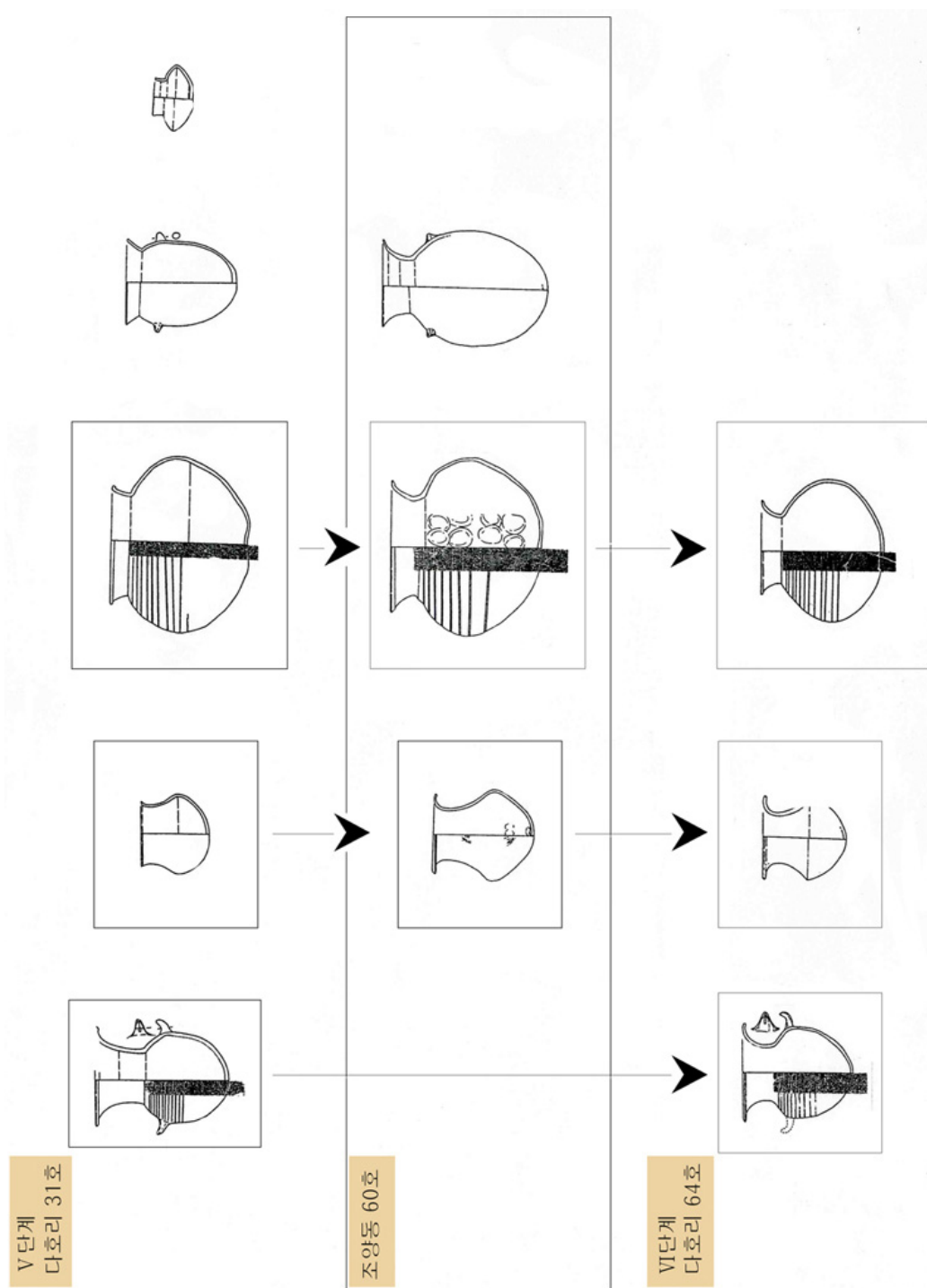
도면 2. 다호리유적 토기 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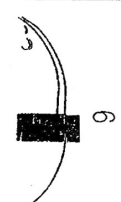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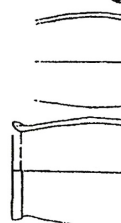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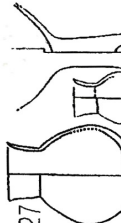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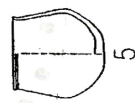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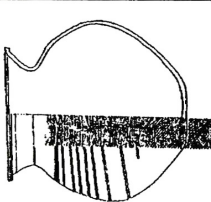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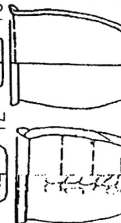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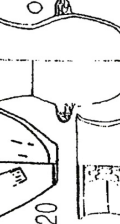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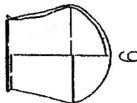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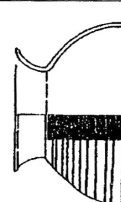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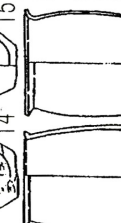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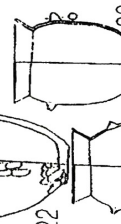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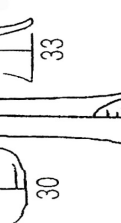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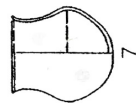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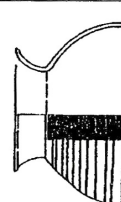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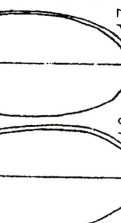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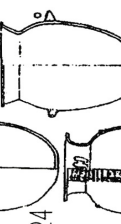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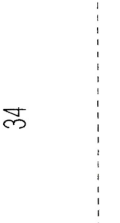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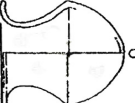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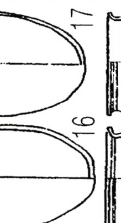


도면 3. 다호리 I-II 단계와 조양동 5호 상관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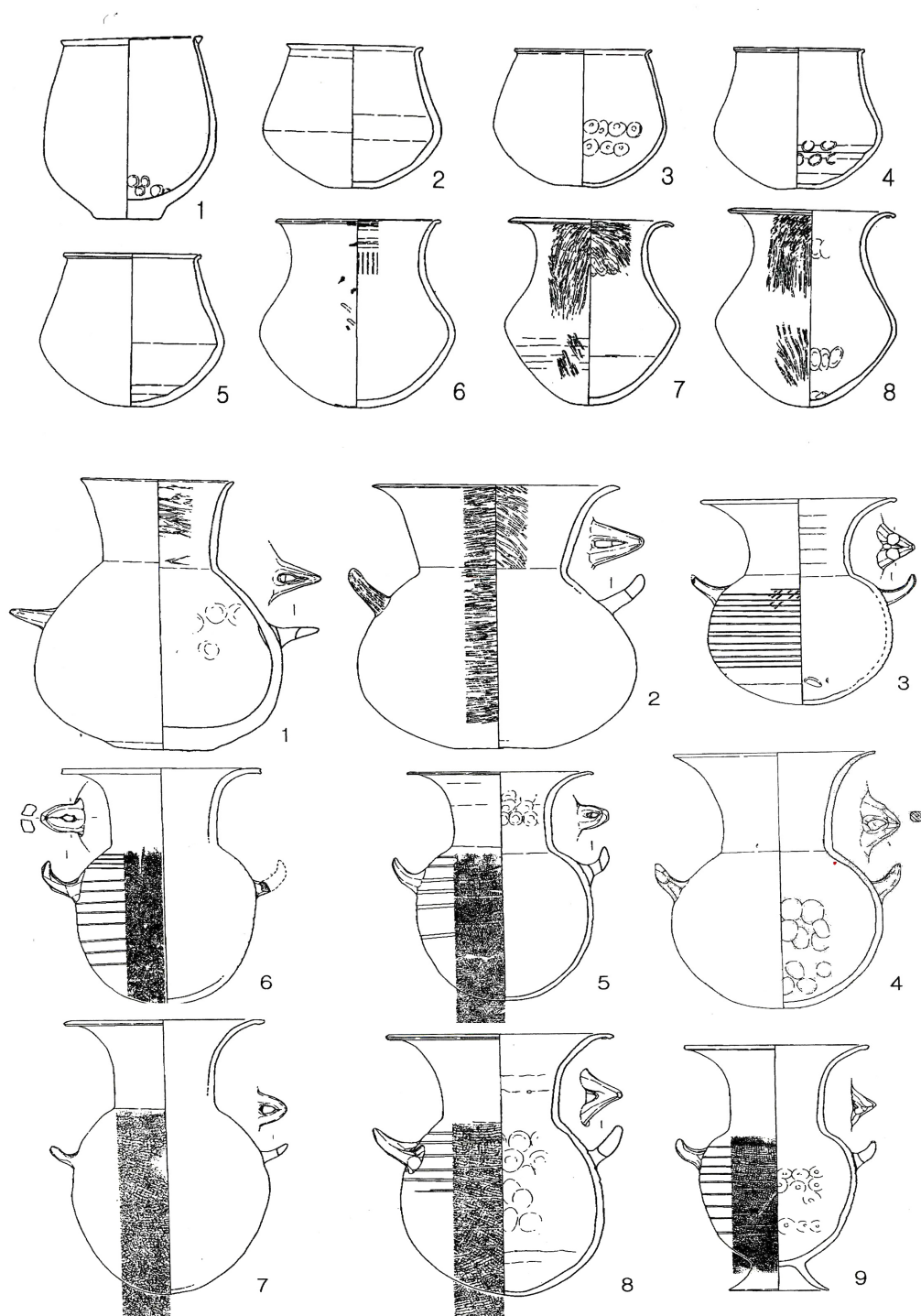
도면 4. 다호리 III-IV단계와 조양동 38호 상관관계도



도면 5. 다호리 V-VI단계와 조양동 60호 상관관계도

組合牛角形把手附壺	주머니호	短頸壺	甕	把手附壺	長頸壺・豆形土器	비고
BC50 I 期						1-도48 2-도30 3-도24 4-도28 5-도25 6-도22(항)
0						7-도31 8-도64 9-도51 10-도30 11-도49 12-도34 13-도58 14-도39 15-도62 16-도40 17-도77
II 期						18-도11 19-도11 20-도50 58호甕관 21-도29 22-도23 24-도37 25-도69 26-도24 27-도70 28-도57 29-도35 30-도63 31-도57 32-도63 33-도57 34-도32
AD100 III 期						
AD150						

도면 6. 이창희(2006) 목관묘 부장토기 편년



도면 7. 권지영(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